

제비집

박탐유 (2013년 제9회 5·18문학상 수상작)

1

들척지근한 핏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 손이며 옷에 달라붙었다. 여자는 살아오면서 이토록 많은 피를 흘려본 적이 없었다. 어른거리는 과녁을 향해 테이저 건을 들어 올렸다. 눈을 지그시 감고 가늠쇠를 겨누었다. 상대는 점점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다. 비릿한 금속이 상대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면 끝이다. 그 순간 식칼이 여자의 옆구리를 후비고 들어왔다. 시꺼먼 손잡이가 뱃가죽에 닿을 때까지 칼날은 몸 안을 깊이 관통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잡음과 소음이 들려왔다.

“구사대 직원이야 얼른 들것에 실어 나르라고!”

침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의사를 부르는 고함 따위가 귀를 파고 들어왔다. 백색광선이 여자의 눈을 비추었다. 여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 전까지 저 빛을 따라 테이저 건을 들고 미로처럼 얽혀 있는 기숙사 복도를 내달려 옥상으로 올라갔었다. 그곳에는 시위를 하고 있던 동료직원 몇 명이 망을 보았다.

동료였지만 그들은 적이었다. 적이라고 하기에는 또 동료였다. 그들은 여자에게 화염병을 던질지 말지 망설였다. 여자 발밑으로 화염병이 맥없이 굴렀다. 여자는 가볍게 그것을 피했다. 피하라고 던진 화염병이었다.

진짜 싸움은 여자 뒤를 따라온 용역 직원이 붙었다. 여자는 얼굴을 감싸 안은 채 벽에 달라붙어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다. 얼마나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아무도 여자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도망치자고 결심한 순간 화염병 하나가 옥상 가건물을 이고 있던 지붕 서까래에 꽂히더니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불은 소리 없이 버팀대를 태우고 아래에서 싸우던 사람들의 옷에 옮겨 붙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칠 때는 이미 물대포가 옥상을 향해 거침없이 뿜어지고 있었다.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느냐 옥상에 남아 용역직원들과 한 패가 되어 사투를 벌이느냐 단 두 가지뿐이었다.

여자는 최루탄 가스로 가득 메워진 복도를 내달렸다. 코를 틀어막을 치약도 없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복도와 복도, 계단과 계단이 이어졌다. 설마 같은 곳을 맴도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다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 말하면 손전등이 내뿜는 희부연 조명과 마주쳤다. 불빛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익숙한 체구. 남자의 손에 들린 새총이 잔뜩 뒤로 당겨졌다. 울통불통한 골프공이 시위를 떠나 날아왔다. 그것은 매끈한 탁구공이 아니라 음각과 양각이 동시에 있는 골프공이었다! 골프공에 맞자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공은 이내 비눗방울로 변했다. 여자는 뽀글뽀글한 기포 속으로 한없이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유독 빛나는 저 별은 뭘까? 왜 별이 하나 둘 늘어나는 거지? 저건 혹시 다윗의 별인가요? 맙소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저를 보살피소서. 끈적끈적하고 찝조름한 핏물이 여자의 입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요!

여자는 마침내 손에 든 테이저 건의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계속 통증이 밀려왔다. 심박수 체크해. 전기충격기 가져와. 두개골 함몰입니다. 옆구리에 칼로 찢린 자국도 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발작하잖아, 입에 수건 틀어막아.

여자 몸에 기계가 압착기처럼 붙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싶어 했잖아, 멍충이! 여자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내려다보았다. 다행히도 천장에 봉봉 뜯은 꼴은 아니잖아? 아직 베개를 베고 누워 있다고! 바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는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려온 것 같기도 했다. ‘간헐 정원, 오성취루’ 라고 누군가 지껄였던 것 같다. 이젠 영화 제목이다. TV 성능실험을 할 때 틀어놓았던 DVD였는데 왜 병원에서 그 영화를 들먹이는 거지? 그러자 또 들려온다. ‘간헐 정원, 오성취루’ …… 주인공은 여자 검객이었다. 별과 달이 내리비추는 밤에 사방이 막힌 정원을 허허롭게 날아다니는 검객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화면을 뭉개버린 기포만 아니었다면…… 기포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이곳저곳에 둥둥 떠다녔다. DVD가 손상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LED 기판 문제였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작업반장의 얼굴에 이주임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어쨌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일 수도 있었다. 여자에게는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남자가 검은 입을 벌리자 이빨 대신 오톨도톨한 돌기가 꿈틀거렸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여자는 어느새 남자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

전화벨이 울렸다.

“저예여, 이주임.”

여자는 핸드폰을 받다 말고 액정에 써진 시간을 보았다. 새벽 네 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여… 여보세요?”

“무슨 열어여.”

“네?”

“무슨 열라구!”

그때 여자는 자신의 원룸 현관을 누군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6평 남짓한 방을 바깥과 구별해주는 건 3센티미터 두께의 철문 현관뿐이었다. 원룸이 곧 주먹과 발길질에 펄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설마 지금 제 집 앞인가요?”

“씨바르, 빨리 문 열어보아!”

여자가 문을 열자마자 이주임이 붉은 피로 얼룩진 숨을 입 밖으로 뱉어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사대 그마 두려거에여.”

“왜 그래요. 그만 울어요. 남자답지 않게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어머, 얼굴에 이 피가 다 뭐야!”

피투성이가 되어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주임을 보고 있자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다. 남아있던 잠기운이 확 달아나 버렸다. 여자는 이주임을 껴안아 벽에 세우고 자신의 잠옷으로 대충 피를 닦아주었다. 그렇지만 집 문을

열쇠로 잠그는 것은 잊지 않았다.

“안으로 드러가며능 안 되어여? 힘드려여. 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어떻게 들어요? 그것보다 우리 회사로 가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요.”

“나능 그사대 그마 둘 거에여.”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요.”

“시바르, 어뜨느미 내 이파르르 싸아 뽀바프러써여.”

“지금 이빨이 없다는 건가요?” “내 이빠리 짝 없다그여! 자아!”

이주임이 입을 벌렸다. 여자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이주임은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여자의 직속 부하다. 상대가 누가 됐든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해서 여자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입 속은 지혈이 된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다.

여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라고 했다. 이주임은 오늘 구사대 당직이었다. 구사대는 회사를 구하는 조직이란 뜻으로 노조에 대항해 회사에 남은 사람들끼리 조직한 단체였다. 노조는 구사대가 회사 임원진을 위해 부역을 하면서 동료를 팔아먹고 있다고 이들을 맹비난했다.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 십 수 년을 함께 일한 동료를 나 몰라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이 노조의 주장이었다.

“노조 사람이랑 싸운 거예요?”

“아니여. 저녀 머코 디엠비 버다가 바로 잠드러써여. 그런데 이러케 돼따니까요. 나도 어쩌케 된 영문인지 모르게써여.”

지난주부터 노조는 4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직원 40여명을 해고한 데 대한 노조의 응답이었다. 여자가 다니는 곳은 LED TV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전자회사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내보냈는데 남아있는 직원까지 파업에 동참하다 보니 안 그래도 업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회사는 오늘 아침에 정리해고자 명단을 더 발표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았다. 천 명이 넘는 숫자였다. 이 소식을 접한 노조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장을 점거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사대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당직을 세우고 용역 트럭 옆에 천막을 쳤다. 그런 구사대에 오늘 아침에도 회사 임원진이 방문해 격려의 악수를 건네고 갔다. 그러자 노조 쪽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다. 여자는 혹시 술을 마셨냐고 물었다.

“술을 안 마셔서써요. 자고 이러나버니 이빠리 업써여”

“싸운 것도 아니면 누가 이를 뽑았다는 건가요?”

“모라요. 나도 머른다구여. 잠깐 잠 드렸는데 일어나보니 이러케 돼써요.”

“어디 이가 없죠?”

“어그니 우 아래 양쪼그 두 개, 아프니 우 아래 두 개, 사랑니이 하나.”

여자는 손으로 곱아 개수를 세 보았다. 총 아홉 개나 빠진 것이다.

“지배 가알 그에여.”

“안 돼요! 가면! 아침까지 있어야 해요. 지금 같이 회사로 가죠. 집에 진통제 있으니 좀 줄게요. 택시에서 자자고요.”

“무서어여……”

“옷 좀 챙겨 입고 나올게요.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요. 이주임이 가면 지금 구사대 캠프는 누가 지켜요. 명심해요. 그대로 버티야 한다고요!”

네 명의 남녀가 잔뜩 긴장한 모양새로 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셔틀콕이 가벼워서 선풍기조차 틀지 못했다. 땀방울이 자꾸 눈으로 내려와 감졌다. 경기실력보다는 한여름 더위에 승부가 갈릴 판이었다.

여자는 맞은편 코트에서 자신의 셔블을 기다리고 있는 작업반장을 향해 셔틀콕을 높이 쳐들었다. 여자와 반장의 관계는 딱히 뭐라 꼬집을 수는 없지만 거북했다. 여자는 컵을 들고 사무실 정수기 앞에 섰다가도 반장이 오는 기미가 보이면 컵을 그대로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 여자에게 반장은 농담과 비슷하지만 뼈가 있는 말들을 해댔다. 비아냥대는 걸로도 들리는 이상한 말투였다. 소문에 의하면 여자를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남자는

술자리에서 킬킬 웃으며 말했다고 했다.

괜히 풀려주고 싶은 애들 있잖아. 개는 그런 애야.

여자는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반장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거울을 노려보다가 불현듯 통장잔고를 떠올렸고 그동안 받은 월급으로 얻은 단칸방을 동시에 그렸다. 친구들은 어딜 가나 뼈뺀 남자는 있으니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만 했다. 뼈뺀 남자에게는 뼈뺀 행동을 보여야 할까? 인내는 곧 돈이다, 라는 마음으로 참았다. 반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게 오 년 쯤이다.

여자가 셔틀콧을 날려 보내고는 바닥을 세게 디뎠다. 목조 마룻바닥이 깔린 회사 체육단련장이 쿵 하고 울렸다. 오늘 이 모임은 여자와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전과장이 고안해낸 것이다. 절대 여자라면 작업반장과 남녀혼합복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는 출근하자마자 이주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구사대 부대장을 맡고 있는 품질관리팀 전과장에게 이번 사태를 보고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과장은 입맛을 쩍쩍 다쳤다. 뭔가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는 버릇이다. 전과장은 양복 재킷을 벗고 회사 로고가 박힌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작업반장한테 전화해서 배드민턴이나 한 판 하자고 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배드민턴을 치자고 해요?”

“저기 화이트보드 안 보이나? 생산팀 대 품질관리팀. 오늘이라구.”

전과장은 할 말이 끝났다는 듯 체육복 하의를 들고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전과장은 이번 일을 노조가 벌였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굳이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작업반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다니. 이주임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입원할 예정이었다. 생니가 아홉 개나 뿔릴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분명 음식에 약을 타서 먹었을 공산이 컸다. 그런데 누가? 왜? 회사와 노조가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군들 노조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전과장이 배드민턴 라켓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어이쿠! 자네 한 방 먹었는걸? 진 팀이 술이랑 노래방 비용 다 대는 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제 마지막 서브였다. 뒤를 받치고 있던 반장이 가볍게 위로 공을 올려 품질관리팀 네트를 살짝 넘겼다. 이때다! 여자는 간신히 네트를 넘기는 수법으로 생산팀 네트 위에 셔틀콧을 물구나무를 세우는 것처럼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러자 황급히 상대편 두 명이 동시에 공으로 달려들었다.

이미 늦었어.

여자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폈다. 한 점 차이로 져서인지 생산팀 여직원 얼굴에는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미 한 게임씩 서로 승리를 나눠가졌고 이번 판에서 이기면 이걸로 끝이었다.

반장은 어느새 라켓을 가방에 집어넣고 있었다. 여자 눈에 반장의 꺾 떨어진 어깨가 들어왔다. 그는 어깨에 수건을 들쳐 메고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허공에 대고 외쳤다.

“곱창에 쪼주 어떻습니까!”

반장은 이 공장에서 15년차 베테랑이다. 옆모습만 보면 배우 같기도 했다. 중년에 접어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복부에 군살 하나 붙지 않았다. 여직원들은 점심시간이면 반장의 날렵한 턱선과 새하얀 피부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여자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국을 떠먹고 김치를 와작와작 씹었다. 식판을 들고 일어서 버리면 모두가 여자의 감정을 알아차릴 터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넷은 샤워를 마치고자마자 곧장 회사 근처 곱창전문점으로 들어갔다. 전과장이 소주잔을 머리 위로 쳐들더니 외쳤다.

“불량률 제로 달성해 상여금 폭탄 좀 받아보자! 건배!”

반장은 씩쓰레한 웃음을 지으며 건배 시늉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더니 담배를 꼬나물었다. 과장은 자꾸 원샷을 외치며 생산팀 여직원과 길게 말린 곱창을 잘라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다. 여자는 뱀처럼 꼬리를 튼 곱창이 숯불에 탁탁 튀겨지는 것을 보며 지난밤 자기 치아가 몽땅 뿔히는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을 이주임을 떠올렸다. 억울하면 이를 문다는데 이젠 악다물 이도 없어진 것이다. 여자가 물었다.

“이주임님 이야긴 들으셨나요?”

반장이 담배 연기를 여자 얼굴에 훑 뿜으며 물었다.

“이주임? 이 주임한테 무슨 일 있소?”

여자는 이 주임이 당직을 서던 어젯밤에 이빨이 아홉 개나 뿜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반장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반장이 과장과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과장이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 이러다 진짜 공장폐쇄라도 하면 어쩔텐가?”

“그게 이주임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가 회사 편을 드는 것도 이해해주게.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야.”

“노조가 파업하는 거랑 이주임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과장이 반장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다. 자기 잔에도 술을 붓고 말했다.

“이만하면 됐어. 자네들이 동료라면 여기서 그만하게.”

“아하! 지금 우리가, 우리 노조가 이주임한테 해코지를 했다 이거군요. 잘못 짚으셨어요. 우린 의리를 중요시하는 집단입니다. 생사람 잡지 마쇼.”

이때 여자가 끼어들었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고를 당하자마자 직접 저를 찾아왔었다고요. 발뺌 그만 하시죠. 이걸 경영진이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뻔한 짓을 했겠소!”

당신은 뼈딱하니깐. 여자는 하마터면 이 말을 입 밖으로 뱉을 뻔 했다.

여자는 아직도 신입사원 시절 받은 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절대 품질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까지 모두 다. 까닥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품질관리는 불량품을 잘 색출해야 한다고 말이다. 여자는 반장과 처음 부딪혔던 날을 기억해냈다. 그날 여자는 반장에게 직원이라면 마땅히 회사의 매출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LED 공장에서 패널 평면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리기관에 굴곡이 생기면 그만큼 화면 얼룩이 생기고 이는 소비자 민원으로 연결된다. 여자는 품질검사를 하면서 패널이 울퉁불퉁한 게 저 생산팀 반장 라인에서 유리기관을 잘못 잘라 생긴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는 그날 LED TV 생산분 패널 전체에 하자 딱지를 붙였다.

“오늘 손실액이 얼마 줄 아세요?”

여자는 신입사원이었고 대줄 출신이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공식과 같은 말을 머릿속에서 지웠다면 반장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요. 인간이니깐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한 거 아닌가, 신입 아가씨? 이런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유리 기관 안 보여요? 여기 여기 또 여기! 다 기포 투성이라고요. 이렇게 버블이 생기면 시장에 나가도 바로 반품돼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멸절한 이름 놔두고 아가씨라니웃!”

“거 참 앙칼지네. 소리 그만 질러. 난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내 원 참.”

“반장님! 반장님이 노조활동을 하는 만큼 작업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벌써 세계 1등을 꿰찼을 겁니다!”

그러자 반장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자판기 커피를 냅다 바닥에 던지고는 곧 여자를 뺨 기세로 달려들었다. 노예근성으로 동료를 죽일 년이로구나 하며 너나 굶실거리고 살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반장은 여자를 때리는 대신 옆에 있던 의자를 사무실 문 쪽으로 던졌다. 다른 직원들이 싸움을 뜯어말리면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양금은 풀리지 않았다. 대신 여자는 골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즈음 회사는 최대 주주가 외국계로 바뀌었다. 시가 3조에 달하는 회사를 5천억원에 매입한 중국 기업은 우선 경영진을 전부 중국인으로 바꾸었다. 중국에 회사가 넘어간 배경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있었다는 루머가 돌았다. 아무리 험값이라도 2조 5천억 원이나 싸게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다가 LED 기술만 쏙 빼먹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브라운관 시대에는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TV 시장의 패권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제 TV 업계는 한국에서 일등을 하면 세계에서 일등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산하거나 일등의 자리를 뺏어보고자 하는 중국 기업에 인수합병 되기 마련이었다.

그 본보기가 우리 회사라니…… 여자는 이곳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만 했다. 여자는 서울 근방의 다세대주택에서 단칸방을 빌려 사는 대신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오피스텔에서 복악산과 인왕산을 바라보며 숨을 쉬고 싶었다. 적어도 그녀가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낼 때는 매출이 좋은 대기업이었다.

어디선가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작업반장이 까만 천업을 여자 그릇에 덮고 있었다.

“어이, 이쁜 아가씨는 이렇게 오тол도톨하게 가시가 돋아있는 걸 먹어야 해. 그래야 더 악다구니 있게 품질관리를 해주지.”

“이제 그만 해요. 이주임이 과다출혈로 죽기라도 했으면 어떡했겠어요?”

여자가 젓가락을 소리 나게 놓았다. 그러자 반장이 얼굴을 굳히고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가씨 밥줄이 지금은 칠밥통인 것 같겠지? 이봐, 언제든 도매가로 팔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난 당신들 사정 몰라. 어쨌든 우리 내일부터 총파업한다!”

과장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여자는 화가 나 앞에 놓인 소주를 급하게 비웠다. 속이 울렁거렸다. 탁자에 놓인 물컵을 입에 갖다 대며 카운터 쪽에 설치된 TV를 보았다. 아직도 브라운관 TV였다. 송출되는 디지털 신호 때문에 화면비율이 맞지 않아 화면 속 인물의 몸통이 잘려 나왔다. 방송에서는 두 명의 남녀 아나운서가 로또 숫자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전과장이 허가 잔뜩 꼬부라져 여자에게 중얼거렸다.

“자네 이번 꺼 로또 샀어? 로또나 되면 좋겠다야.”

여자는 본방은 이미 토요일에 했으며 지금은 재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다 말았다. 이미 다들 취한 상태였다. 대신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허공에 대고 말했다.

“이 가게 TV도 우리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 우리 고객이 될 사람들이라고요. 공장 문 닫으면 주문물량도 못 맞추잖아요.”

여자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술에 취한 작업반장과 생산팀 여직원과 전과장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할 거야. 하지 말라고, 할 거라니깐.

여자는 아직 굵지 않은 생콩창을 바라보았다. 문득 반장의 목덜미를 후려치는 상상을 해보았다. 곱창이 터지면서 찢득하고 미끈한 지방이 반장의 얼굴에 똥물처럼 튀기는 것을.

여자는 마지막 남은 소주를 흔들며 따르고는 술잔을 짹 쥐었다. 지난주에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별장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회사 중역 몇 명과 갖는 조출한 파티라고 했다. 여자는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건 부사장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무런 연줄도 없는 대리급 사원이 결재 라인을 타지 않고 직접 부사장과 대면할 기회란 우수사원 표창장을 받을 때 빼고는 없다. 꼭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날 보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타보았다.

3

몸에 붙은 전선줄이 너무 많았다. 띵 띵 띵 띵 띵 띵—— 혈압이 떨어지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야. 아프다고. 으헝으헝으헝. 어디선가 다다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녹색 스크린이 이상해요. 여기 아가씨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 호출 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간호사 아주머니 목소리가 어쩔 이리 반가울까.

그래, 보여요. 붉은색 심장 마크가 번쩍거리는군요.

신호음도 들리지.

바이탈 사인 체크해봤어?

사인이라면 사인함수밖에 모르는데. 함수 두 개만 그러도 가로축 세로축 왔다갔다하면서 봉긋한 유방 두 개가 그려지는 걸.

세로축을 더 높게 그리면 마치 내 가슴이라도 되는 양 뿌듯했어. 그래프 안에 점은 까맣게 잘 칠해야 해. 내 꼭지라 생각하고. 로또 숫자를 색칠할 때 사인함수를 쓴 적이 있었지. 상금이 꽤 쏠쏠했어. 아차, 농협에 가야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 혹시나 말하는 건데, 택시기사에게는 서대문경찰서로 가달라고 해야 해. 내가 로또 당첨자인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죽기 싫단 말이야!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거야. 머리는 올리고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가야겠어. 사인함수 주기는 2π , 궁금한 건……

혈압 칠십에 맥박 백삼십. 이제 떠나는 중이군, 이 여자. 전기 충격기 한번 더 쓸까요? 어제 잠시 괜찮아졌잖아요. 그래, 코에 튜브 꽂아봐. 자, 간다. 삼백 줄로 연결해.

두 짝을 맞댄 전기 충격기가 여자의 가슴을 들었다 놔다.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기계에서 흘러나왔다.

아드레날린 십 밀리그램, 솔루메들롤주 백이십오 밀리그램 넣어봐. 자, 삼백오십으로 간다.

또 한 번의 충격. 또 한 번의 경련. 여자의 허리가 휘고 침대가 들썩거렸다.

후. 하.

여자 눈에 깨알 같은 쌀알이 쏟아졌다. 쌀알은 갑자기 여러 겹의 동심원이 되어 눈앞을 빙글빙글 돌더니 손끝 발끝에 통증을 가져왔다. 그것은 진동을 일으키며 점점 커져갔다. 거대한 열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여자는 손가락을 까닥여보았다.

어이, 성공이야!

스크린에 녹색불이 들어오더니 점으로 이어지던 신호가 사인곡선을 그리며 평온을 되찾았다. 호흡은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흘렀다.

별은 오각형도 육각형도 원형도 아니야. 여러 겹의 동심원이지. 고호는 이미 발견했던 거야. 별이 골프공 같이 생겼다는 걸. 하얀 바탕에 운석 구덩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흠은 계속 보고 있으면 공이 부르르 떠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을 그릴 때 병실 구석에 골프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을지 몰라. 그림을 보라고! 회오리바람을 사이에 두고 윗부분에 유난히 빛나는 다섯 개의 별 보여? 달도? 고호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이 다섯 개의 별과 그믐달로 표현한 거야. 한 세계가 종말을 고할 때 등장하는 천문학적 현상이지. 멸망은 항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신새벽이란 표현은 틀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 별이 이렇게 늘어설 때 단군이 세운 고조선도 멸망하고 말았어.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흥분했었지. 중국에 싹 먹힐 거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중국이 칼끝으로 성문을 대기만 했는데도 저절로 열렸단나? 국을 하면 뭘해! 고호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 고호가 이때만큼 종교에 대한 처절한 욕구를 느낄 때도 없었다고 하지. 매독이 기도로 나왔다면 나는 고작 머리에 상처가 났을 뿐이니 이미 산소호흡기를 빼버렸을 거야. 어디서나 중국이 문제야. 이런 문제가 내 삶을 파고드니 더 문제야. 그런데 왜 이렇게 너는 시끄럽니? 시끄러워. 자고 싶다고. 기계음도 규칙적인데 그만 말하란 말이야.

여자는 여전히 병실 안에 누워 있었다. 중환자실은 다시 고요 속에 빠져들었고 당직 간호사는 긴 하품을 했다. 아무도 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격렬한 꿈을 꾸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시계 가는 소리만이 병원을 채우고 있었다.

4

여자는 헬리콥터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 속이 메스꺼워지는 게 더 힘들었다. 신트림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부사장 비서가 자꾸 말을 걸었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택지 개발을 했다고요?”

“네! 원래는 저기가 싹 무인도였어요! 이젠 사장님 거예요!”

두 사람은 있는 대로 소리를 내지르며 대화를 나눴다. 부사장이 초대한 곳은 중국인 사장이 가지고 있는 별장이었다. 말이 별장이지 섬 전체가 그의 소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중국인 사장은 대륙의 남아답게 스케일이 컸다. 돌섬에 굴삭기를 가져와 갈아엎고 상하이에서 직접 수입한 황산 소나무로 중국식 가옥을 지었다.

별장 부지만 300평 정도 된다고 했다. 사장은 사람들이 살기 마땅치 않아 버린 섬에 집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섬 전체를 산 것은 아니지만 사장 별장만 있어서 거의 전부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왔는지 헬리콥터가 착륙 준비를 했다. 수직하강을 하며 고도를 낮춰가자 돌에 구멍을 뚫고 박아놓은 오성홍기와 거의 부딪힐 듯 스쳐지나갔다. 멀리서도 처마 끝이 과장되게 올라간 중국식 기와가 보였다. 비행기와 달리 선체가 많이 흔들렸다. 여자는 안전바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앉아 있었다.

“사장님은 세일링 끝나고 들어오실 거예요!”

“뭐라고요?”

“요트 타고 계신다고요!”

출발하기 전에 들었다. 부사장과 그 일행은 부산 리조트에서 출발해 개인소유 요트를 타고 섬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다. 중국인 사장은 한국에 오자마자 남해에 버려진 섬 중 하나인 이곳에 별장을 지었다. 이곳에서 어떤 파티를 해도, 누구와 밀회를 해도 밖으로 알려지기란 힘들었다.

들끓던 엔진도 어느새 정지하고 주위에는 흙먼지만 날아다녔다. 간신히 착륙지점에 닿은 듯 보였다. 고작 3미터 앞에 벼랑 끝이 보였다. 그 아래로는 뜨거운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별장 앞에는 밭으로 개간한 땅이 보이고 돌산에는 잡목이 심어져 있었다. 여자는 허리를 돌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다. 오랫동안 덜컥거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니 다리 전체가 저릿저릿했다. 부사장 비서가 양복을 털고서는 오른손을 뻗어 별장을 가리켰다.

“그동안 격납고 구경이나 하실래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이 짝 빠졌는데 또 헬리콥터 구경이나 하라고요?”

부사장 비서가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디 가셔도 이런 건 구경 못할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요.”

돌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소형 자동차로 이동했다. 섬 전체에 사람이 얼마나 살까 싶었다. 중국인 사장이 부리는 관리인 몇 명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섬에 도착해 옆에 있는 부사장 비서와 헬리콥터 조종사 말고는 본 사람이 없었다. 완전히 고립된 장소이고 오늘 죽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이곳은 적막강산이었다.

실상 비서가 말한 곳은 격납고 옆에 붙은 커다란 창고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야전창고 문이 열리자 자동센서가 작동해 천장에 달린 전구가 문가부터 차례로 켜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여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라이플과 권총뿐만 아니라 탱크와 박격포, 미사일이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퍼뜩 스쳐지나갔다.

“이게 다 뭘니까? 우리나라는 호신용 장비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남의 취미생활인데 그렇게 재미없는 말을 늘어놔서야 어디 원. 국방부 사람들도 감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알고 있다고요? 사장님이 군수업체도 갖고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부사장 비서가 정색을 하고 여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얼굴 근육을 풀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했다.

“여하간 저게 얼마 전에 미국 위성을 쏘서 떨어뜨린 중국제 탄도미사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보느라 탄도미사일을 못 쓰잖아요.”

부사장 비서는 여자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사일 종류와 중화기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과연 섬이 필요할 것 같았다. 여자는 유명마술과 같은 이곳에서 중국인 사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불러낸 것인지 궁금하기만 했다.

한 시간 후 부사장, 중국인 사장과 이사가 한꺼번에 별장에 들어섰다. 부사장은 여자를 중국인 사장에게 인사시켰다.

“사장님 불에 키스 해야지. 서구식 인사 몰라? 사장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셔서 서양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자, 어서!”

모두가 다 듣게 큰 소리로 여자를 재촉한 부사장이 이내 여자의 팔을 꼭 쥐고서 속삭였다.

“립스틱 자국이 남는 걸 좋아하셔. 잘해 봐.”

여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사장을 올려다보았다. 부사장은 이미 여자를 보고 있지 않았다. 중국인 사장은 사교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벗어날 마땅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한 번 뿐인데 뭘, 하는 심정으로 여자는 중국인 사장에게 다가섰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문질러 립스틱을 고루 펴 바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사장의 볼에 소리 나도록 뽀뽀를 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인 사장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더니 엉덩이를 쥐고 주물럭댔다. 여자는 온 몸이 경직되면서 표정이 굳어 버렸다.

부사장이 외쳤다.

“배고프군요! 모두들 식당으로 이동하시죠.”

식당 천장에는 누군가를 압사하려고 달아놓은 것 마냥 거대한 샹들리에가 흔들렸다. 탁자에도 초가 8개씩이나 꽃힌 촛대가 여럿 놓여 있어 그림자가 나올거렸다. 여자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식탁 위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담소를 나누면 어색한 미소를 띠며 앞에 놓인 물잔만 기울였다. 주방에서는 할리우드 시대극에서나 봤을 웨이터가 나와 식사를 날랐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쿡수염을 기른 보이들은 19세기 영국에서 공수해온 것처럼 예의 바르고 경직되어 있었다. 여자는 소꿉다리근육으로 만든 스테이크를 뜯으며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부사장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들어오는 길에 야전창고도 구경했나? 사장님이 물어보라고 하시는군.”

여자가 중국인 사장을 보며 고개를 까닥했다.

“네. 그렇게 많은 무기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어야 자기 방어도 할 수 있고 좋을텐데 말야. 안 그래?”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중국인 사장은 항상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표정변화를 알아채기 힘들었다. 주로 부사장이 말을 했다.

“우리 회사쯤이면 일반적으로 명문대가 아니면 들어오기 힘들어. 스펙도 좋아야 하고 외국어 실력도 훌륭해야 하니깐. 물론 나는 사무직원 수준을 이야기 하는 거지.”

“네. 저도 일본어는 조금 할 줄 압니다. 대학 시절부터 줄곧 저희 회사만이 목표였고 지금도 회사를 위해 뼈를 문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조건이 좋으려면 집도 부자더라고. 안 그러나?”

“아무래도 조건을 맞추려면 돈이 드니까요.”

“듣기로는 자네는 아버지가 없다며? 소년소녀가장 전형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네만. 내가 틀렸나?”

“아…… 아닙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집도 월세고 자네도 원룸에 산다지?”

여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자기도 모르게 부사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마터면 그래서요? 라고 물어볼 뻔 했다.

“하하. 그렇게 놀라지 말게. 내가 구사대 직원들 뒷조사를 좀 했어. 그 중에 자네가 가장 맘에 들었지.”

“어떤 면에서요?”

여자의 말에 중국인 사장이 두 손을 턱에 괴고 여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사장은 식탁에 놓인 디켄터를 들어 여자에게 와인을 따라 주었다. 이사가 오른손을 들어 마시라는 시늉을 했다. 여자는 와인잔에 든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좋아. 좋다고. 자네의 그런 근성이 아주 맘에 드는군. 도전적이야. 자네 같은 대리 나부랭이가 부사장인 나한테 어떤 면이 맘에 들었냐고 물어보다니 말이야. 뒷배경도 없는 주제에.”

부사장이 주위를 돌아보며 다시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다.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여자는 중국인 사장과 이사를 보았다. 이들도 지금 나누는 대화를 알아듣고 있을까? 여자는 점점 긴장되고 얼굴이 굳어갔다.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인 사장이 갑자기 영어로 물었다.

“Have you ever tried to eat bird’ s nest soup?”

여자는 새 둥지로 만든 스프가 어디 있을까 싶어 얼른 대답을 못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갑자기 사장이 옆에 놓여 있던 종을 흔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곧바로 식탁에 스프 그릇을 놓고 갔다. 얼른 봐서는 누룽지 같아 보였다.

“한국어로는 연와 요리라고 하네. 여기에 사백 년 묵은 제비집이 들어 있는 거야.”

부사장이 걸쭉한 스프에서 시뻘건 건더기를 건져 들어 보이며 말했다.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꾸 귀지가 떠올랐다. 귀지와 비듬과 코딱지를 뭉쳐서 빨간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질감이 더러워 보였다.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녁 식사 분위기에 자신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중국인 사장이 부사장에게 중국어로 말을 했다. 도대체 몇 개의 단어, 몇 개의 문장이 사장의 입을 통해 나오는지 감도 잡을 수 없었다. 말은 대공 미사일보다 빠르게 들렸고 부사장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는 시늉을 했다. 심지어 여자는 아까 영어조차 한국어로 빨리 바꾸지 못했다. 그냥 새둥지스프가 아니라 이것은 제비집요리다. 제비집요리를 새둥지스프라 편하게 영어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래도 중국인과 대화하려면 그 정도의 영어는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여자는 눈을 딱 감고 빨간 건더기를 베어 물었다. 의외로 그것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제비는 번식기에 침샘이 팽창하면 그걸로 집을 지어. 근데 워낙 귀한 음식이니까 제비가 집을 짓자마자 사람들이 훔쳐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젠 침이 모자라니까 자기 털까지 뽑아서 집을 짓거든? 그걸 털 모 자를 써서 모연이라고 해.”

여자는 재빨리 스프를 저어 털이 있는지 확인했다. 부사장은 말을 이었다.

“거긴 없어. 이젠 모연이 아니니깐. 내 말 들어봐. 그니깐 이 제비놈들이 절벽에다가 또 집을 지어. 살아야 하잖아. 그걸 또 알고 사람들이 훔쳐가 버리는 거지. 그럼 이젠 남은 게 뭐겠냐?”

여자는 말없이 부사장을 바라보았다.

“바로 자기 피야. 마른침을 뱉다보니 속에서 피가 토해져 나오는 거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 새끼도 기를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혈연이라고 해. 자기 몸이 바로 문패이자 집인 거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집!”

혈연.

여자의 그릇에 담겨있는 빨간 건더기의 실체는 제비가 피를 토해 지은 제비집이다. 사백 년된 제비의 침과 피다. 저 중국인 사장은 마지막 남은 제비의 집까지 떼어내서 자신의 식탁에 올렸다. 여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다.

중국인 사장이 영어로 말했다. 회사도 제비집과 같은 존재이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대충 해석되었다. 우리는 혈연을 맺은 것처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으며 피를 토해서 집을 지켜야 한다는 비장어린 말까지 곁들였다. 부사장이 말했다.

“자네가 책임자였네. 우리 회사를 위해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아 참, 아까 자네 입으로 말하기도 했었지?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고.”

상투적인 관용어가 더 이상 상투어가 아닌 직접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 무척 난감해진다. 돈이 없는 상황을 입에 거미줄이 쳤다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입에 거미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난감하겠는가. 거의 그런 경우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사장은 여자에게 노조지부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방도를 일러주었다. 그 일에 이주임을 이용하라고 했다. 그리고 치과용 펜치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선 아파트를 일차 지급하겠네. 파업이 장기화되어 구사대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회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게.”

“저보고 제 동료의 이를 뽑아 아파트를 장만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독하게 보이나요?”

“Think easily, you just build your bird’ s nest.”

중국인 사장이 양 손을 펼치며 오동통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여자만을 쳐다보았다. 작업반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뒷선에서 알기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도 반장을 궁지로 몰고 더 나아가

노조 전체와 대척하는 일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구사대에 들어가 구사대란 이름 아래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결정을 하고 대답을 해야 했다.

여자는 심호흡을 하고 입술에 침을 발랐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아. 그럼 노조가 물러나게 되면 오피스텔도 한 채 마련해주지. 어떤가?”

부사장의 제안에 여자 머릿속에 숫자가 마구 새겨졌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가 전부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주임 이빨 따위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여자가 서둘러 물었다.

“계약서는요?”

“그건 우선 연와요리부터 마저 먹고 이야기 하지.”

말을 마친 부사장이 두 손을 마주쳐 두 번의 박수를 쳤다. 이것은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놓았다.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중국인 이사가 여자의 잔에 술을 따랐다. 이제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5

‘금일부로 공장폐쇄. 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정상조업 불가. 자택에서 대기바람.’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던 도중 받은 문자였다. 이주임 치아가 뽑혔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를 돈 지 이틀이 지난 후였다. 부사장은 우선 노조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힘이 빠져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처음에는 진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라고 했다. 여자는 유급휴가도 아닌데 어딜 놀러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구사대는 구사대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돌아가며 당직 정도만 썼는데 이젠 아예 용역과 한술밥을 먹게 되었다. 여름 더위가 언제 꺾이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여자는 부채질을 하며 거의 널브러져 있다시피 바닥에 앉아 있었다. 쌍안경을 들고 노조 진영을 정찰하고 있던 총무팀장이 외쳤다.

“공장 옥상으로 드럼통을 운반하고 있는 걸? 뭐야 저게…….”

“어디 좀 봐요.”

품질관리팀 전과장이 쌍안경을 뺏어들었다.

“화학물질 같은 게 든 건 아닐까?”

“그걸로 뭐하세요?”

다들 뜨악한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해골표시가 그려진 드럼통으로 옥상을 막아 용역과 경찰의 침투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망루를 견고하게 만들어 얼마나 더 버티려고 하는 것일까. 공장 안은 얼마 전부터 물도 끊겼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제는 작업반장이 전과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팬티 한 장만 빨아 입고 싶어요. 물도 원 없이 마시고 싶고 자판기 커피도 생각나네요.’

전과장은 작업반장이 사람은 남자답고 좋았으며 휴대폰 액정을 만지작거렸다. 그래도 선뜻 구사대 부스 안에 있는 생수통 하나를 건넌 생각은 하지 않았다. 혹시나 걸리면 윗선에 눈총이 박힐까 두려워하는 게 얼른 봐도 보였다. 그러면서 욕설을 뱉었다.

“에이 새끼들, 동료 이빨까지 뽑으면서 자기 보신하겠다고 말이야.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저놈들은 진작 잘렸어야 했다고.”

지난주에는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노랑, 파랑, 주황, 빨강 등 색깔도 다양한 최루액을 뿌려댔다. 그날 여자는 싱겁게도 바리케이드가 무너지고 내일부터 정상조업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노조는 더욱 악착같이 투쟁가를 부르며 피부가 썩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의료진을 넣어달라고 팔뚝질을 했다.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너와 나 너와 나……

노조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여자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도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삶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추억 같기만 했다.

경찰은 지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노조가 뭐라 하든지 판청만 피워댔다. 이러다가는 여자가 먼저 탈진할 판이었다. 여자는 눈만 빠끔히 내놓고 수건으로 얼굴을 전부 가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신문지 한 장만 깔고 앉아 지루하게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옆에 있던 고객센터직원 직원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맡겼다. 거기에는 ‘정상조업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적어져 있었다. 여자는 플래카드를 되대로 구겨 옆으로 치워버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조용하던 주위가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로 채워졌다. 고객센터직원 직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도망친 건 아닐까? 가만 보니 구사대 직원들이 어디론가 바빠 걸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슴이 마구 쿵쥔거렸다.

도시락이 도착했다.

아직 햇살이 따가운데 벌써 저녁 일곱 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구사대 임원과 경찰, 용역대장이 도시락을 까먹으며 머리를 맞댔다. 세상이 여자만 빼고 뱅글뱅글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도시락을 들고 사람들이 지나가자 김치 냄새가 풍겨왔다. 여자는 잠시 긴장했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내심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길 은근히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꿈벅거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다. 영원히 파업 전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사상자가 날 테고 여자를 비켜가란 법도 없으니까.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가 순순히 이쪽 요구대로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아무도 여자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오늘 하루 일과나 날씨 따위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언젠가부터는 배달되는 도시락을 찾아 끼니를 때우지 않으면 그날 밥은 굶어야 했다. 공장 밖이라고 해서 구사대와 경찰, 용역병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금속노조 사람들과 각지에서 몰려온 촛불 시위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종교인과 정치인들로 앰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동료의 생니를 뽑아놓고 모른 체하는 파렴치한 노조는 각성하라!

잘못은 정부와 회사가 했는데 해고는 노동자의 몫? 이간질을 중단하라!

우리는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끄럽고 혼잡스럽고 더럽고 덥고 지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여자는 먹는 것만이 살 길이지, 하며 옆에 놓인 플래카드를 접어 허리춤에 꽂았다. 도시락 박스가 유난히 공장 근처 철조망에 가깝게 놓여 있었다. 여자는 흐르는 땀을 훔칠 기력도 잃어버렸다. 연체동물처럼 도시락을 향해 비척비척 걸어갔다.

도시락과 생수 한 통을 막 집어들고 가려는데 누군가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별로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자 또 한번 여자를 불렀다. 귀찮다는 듯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 땀물과 땀에 젖은 작업반장이 씨익 웃으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반장을 알아보지 못해서 한참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반장은 워낙 피부색이 하얀 데다 수염도 빨리 자라지 않았다.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 근무조여도 낯을 새워 조업한 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반장이 여자 앞에 비 맞은 마대자루처럼 초췌하고 지친 몰골로 서 있었다. 긴장했던 체구도 살이 빠져 어깨뼈가 티셔츠 위로 불룩 튀어나왔다.

“나랑 이거 바꿔 먹자.”

반장이 손을 철조망 사이에 끼워 내밀었다. 여자는 얼떨결에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반장의 손에는 짜파게티 국물이 묻은 주먹밥이 들려 있었다. 때가 낀 손톱이나 짜장 소스가 묻은 주먹밥이나 모두 오물로만 보였다. 사람이 먹을 음식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여자는 그나마 생겼던 식욕이 썩 사라졌다.

공장 안에는 단수가 되었고 소화전에서 나오던 물마저 끊어버려 마실 물도 없다고 들었다. 김치는 반입금지된 지 오래되었고 오직 쌀밥에 없었다. 비상식량으로 짜파게티 몇 봉지만 남아 있는데 가끔 소금기가 있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날, 그것을 한 봉지만 끓여 수십 명이 나눠 먹는다고 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나 어울리는 짓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여자는 작업반장의 손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설마 여자가 중국인 사장의 별장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주말에 갔다 온 일인데 미행하지 않고서야 알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파업하게 된 게 제 죄는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잖아요. 반장님은 다른 데로 아직 이직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살자고 이러는거야? 네 눈엔 그렇게 밖에 안 보여? 그래서 네가 이주임 이빨도 뽑을 수 있었던 거냐?”

여자는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모함도 정도껏 하시죠!”

우선 말을 뱉어놓고 보았지만 상대가 어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반장이 주머니에서 담뱃갑 크기의 종이를 꺼냈다.

“네 습관에 발목이 잡힌 거야. 이걸 구사대 캠프 바닥에서 발견했지.”

우측 상단에 여자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그건 여자가 구입한 로또였다. 혹시나 잃어버릴지 몰라 자신의 회사명과 이름을 적어놓곤 했던 습관이 종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자는 그동안 로또를 잃어버렸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언제나 발표 날이 되면 지갑에서 꺼내 숫자를 맞춰보곤 했기 때문이다. 반장이 쥐고 있는 로또의 발표일은 이주임이 치아를 잃은 그 주 토요일이었다.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보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파업이 시작되고 많은 것이 변했다. 날짜가 가는 줄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귀찮기만 했다. 반장은 여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여자 눈앞에 종이를 고정시켰다.

“어때? 이걸 발견했다 이 말이야. 이주임이 나한테 직접 줬어.”

이주임은 구사대 직원이다. 로또에 이름이 적힌 걸 보았다면 작업반장이 아닌 여자에게 전해주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걸 작업반장이 가지고 있다면 이주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랐다. 어디선가 주워놓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이주임은 여자의 직속 부하이고 그동안 별 탈 없이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던가. 반장의 말대로라면 이주임이 구사대와 회사 경영진을 따돌리고 노조와 손을 잡았다는 소리다. 그건 아무리 봐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였다. 더군다나 이주임이 모든 걸 알아차렸을 것 같지 않았다. 이주임은 파업이 벌어진 후 윗선의 지시로 병원에 입원했다. 심지어 병문안을 갔더니 수고가 많다며 여자의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지 않았던가. 여자는 반장이 자신을 떠보려는 심산이라고 생각했다.

“구사대에서 발견했다면 그곳은 제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저도 모르게 떨어져 있었을 수 있다고요. 설마 이런 걸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 아가씨야. 네가 그냥 떨어뜨릴 만큼 허술한 인간일 리 없잖아. 넌 그 순간 당황했던 거야. 보아하니 잃어버린 줄도 몰랐구먼? 어떻게 매주 하던 걸 네가 까먹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아요. 당신 정말 구제불능…….”

그때 어디선가 와아아—— 하는 거친 함성이 들려오면서 여자의 말이 묻혀버렸다.

한두 명이 질러대는 고함이 아니었다. 둘은 말다툼을 하다 말고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해질녘이 되자 바람이 불어오면서 주위에 나뒹굴던 쓰레기가 덩달아 날아다녔다. 서늘한 기운이 옷 속을 파고들었다.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시위대 쪽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노조 깃발이 부러졌다!”

고개를 드니 어느새 경찰 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크레인에 실려 하늘을 날고 있었다. 철조망으로 달려드는 경찰병력에 여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시위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이것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일이었다.

반장은 로또를 자신의 주머니에 다시 넣고 외쳤다.

“돌아 가! 어서! 이대로 있으면 넌 밟혀서 죽어!”

반장이 여자를 밀어냈다. 여자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어리둥절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도망가라고! 이 꼭두각시야!”

반장이 철조망을 치며 여자에게 소리쳤다. 여자는 반장의 커진 눈을 한번 봤다가 까만 옷에 ‘씨큐리티’라는 하얀 영어를 가슴팍에 쓰고 달려오는 일련의 남자들을 보았다. 여자는 이내 직감했다. 달려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 공장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자는 머리에 쓴 썬캡을 벗어던지고 혼이 빠져라 구사대가 있는 후방을 향해 달렸다. 밥을 먹으며 노닥거리던 경찰이 언제 이렇게 집결했을까? 여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모두들 바닥에 앉아 덩다고 투정부리며 부채질이나 하고 있지 않았던가.

전과장이 여자를 발견했다. 병음료 박스를 들고 올라서 있던 과장이 작업복을 벗어 머리 위로 흔들었다. 이리로 오라며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여자에게는 수신호만 보일 뿐이었다. 여자는 과장을 보자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여자는 과장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자 과장이 비비탄과 비슷하게 생긴 총을 쥐어 주었다.

“이걸 저 악질노조놈들한테 쏘.”

“이게 뭔데요?”

“그냥 쏘……”

과장은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더니 자신도 총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특히 얼굴을 겨냥해야 돼.”

말을 마친 과장이 전역한 군인답게 총을 쏘았다. 여자는 과장이 총을 쏘는 걸 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총알을 맞은 상대가 경련을 일으키며 풀썩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과장이 맞힌 사람은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정신을 잃었다. 여자는 총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뒤에 있던 구사대 대원들이 전진하면서 외쳤다.

“너 테이저 건 들고 폼 잡고 있냐! 죽고 싶어? 쏘라구!”

테이저 건.

여자는 이제야 총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전기총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맞으면 전기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여자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 화염병이 날아들고 눈앞에서 파이프를 든 사람들이 서로를 때리고 짓밟았다. 바리케이드는 무너지고 노조와 구사대, 용역과 경찰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총을 받쳐들고 과녁을 찾았다.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한다. 그러던 중에 공장에서 본 적이 있는 생산직 노무자를 발견했다. 역시나 노조를 나타내는 빨간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여자는 그를 과녁판에 넣고는 눈을 찔끔 감았다.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때 누군가 여자를 밀치고 파이프를 휘둘렀다. 여자가 점찍어둔 상대는 파이프를 맞고 쌍코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구사대는 뒤로 빠져! 얼른!”

과장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또 다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여자는 도로 쪽으로 내달렸다. 어떻게든 현장과 멀어지고 싶었다.

언제 도망쳤는지 구사대원들이 현장과 조금 떨어져 있는 나무 아래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다들 어찌 할 바를 모른 채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다. 과장이 대원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여자 대원 한 명이 필요하대. 오늘이 고비인가봐.”

과장이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다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성이잖아. 여자한테 무슨 험한 짓이라도 할까봐? 경찰이랑 함께 가는 거라니깐.”

그때 누군가 여자의 등을 밀쳤다. 여자는 엉겁결에 과장 앞으로 나서게 되었다. 뒤를 돌아 여자를 밀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좋아! 역시 우리 품질관리팀밖에 없어. 내가 자넌 항상 신뢰하는 이유지. 자, 가세.”

여자는 싫다는 말도 못하고 끌려가게 되었다. 특공대원에게 여자를 인계한 후 과장은 여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출근해서 보세. 역시 회사를 구하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자네밖에 없어. 없어. 없어. 없. 어.

과장의 목소리가 텅 빈 위장에 울렸다.

여자는 허기졌다.

먹지 못한 도시락. 받지 못한 로또. 입으로만 계약한 아파트.

여자는 시커먼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과 컨테이너에 실려 기숙사 지붕 위로 올려졌다. 철로 된 컨테이너가 슬레이트 지붕에 닿자 임시로 설치된 천막이며 플라스틱 부스가 강판기에 들어간 것처럼 일그러졌다. 기우뚱거리며 잔해 더미 위에 안착하자마자 손에 소화전을 든 특공대원이 일차 침투했다. 여자는 완전무장한 이차 침투대원의 가장 앞 열에 세워졌다.

“저기 골뚱 있던 자리 보이시죠? 저기에 지금 대원들이 사다리를 놓았어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같이 내려와요. 우리가 보호해줄테니 염려 말고요.”

“저는 지금 맨몸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테이저 건 쏘세요. 민간인에게 산탄총을 줄 순 없잖아요. 당신은 유인만 하면 됩니다.”

앞선 대원이 손짓하며 여자를 불렀다. 쉽게 걸음을 못 떼고 있는데 뒤에 있던 대원이 여자를 들어 올리다시피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계단이 위장약 광고에나 나오는 창자처럼 꼬이고 꼬여 있었다. 열 걸음 앞에 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경사가 급했다.

위에서 화염병이 내려왔다. 한 개, 두 개, 발밑에 떨어져 불씨를 남겼다.

“회사 사람을 데려왔어요! 협상해요! 화염병 던지지 말아요!”

“거짓말! 너넨 완전무장했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원 중 한 명이 위를 향해 신호탄을 쏘아 주위를 밝혔다. 그러자 화염병 하나가 여자 근처에 떨어졌다. 망루 끝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작업반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진들이었다. 그들은 골프공을 매단 새총을 들고 아래를 노려보고 있었다.

“벽에 붙어요!”

특공대원이 소리치자마자 여자는 벽에 바짝 붙었다.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밀치고 올라오는 대원들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찰과 노조는 서로를 향해 쏘았다. 대원이 어느 정도 올라가자 아래가 험령해졌다. 여자는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가 최루탄과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망루는 곧 경찰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그러면 노조는 해산할 수밖에 없다.

매운 연기에 눈물이 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 신경계가 울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아무리 내보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여자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남자의 체구나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반장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들었다. 그런 순간 이주임이 어떻게 걸었던가를 잠시 생각해보았다. 반장 같기도 하고 이주임 같기도 했다. 이제는 그저 남자의 걸음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저 익숙했던 몸짓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공은 여자의 오른쪽 이마를 강타했다. 순간 여자를 둘러싼 세상이 쪼그라들면서 무언가가 여자를 압박했다. 골프공을 맞은 자리에서는 피가 흥건히 배어나왔다. 아픈 만큼 별이 늘어났다. 어느 순간 빠글빠글한 거품 속에 별 몇 개만이 둥둥 떠다니는 환각 상태를 경험했다.

어둠은 강했다. 골프공이 날아온 방향을 그려보면 대충 다섯 개의 점을 좌표에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측정한 품질완성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볼까? 이번에도 유리기관을 잘못 자른 것은 아니겠지.

그때 옆구리에 칼이 들어왔다. 사람의 몸은 질기다. 칼날이 쉽게 먹히지 않는지 또 다시 같은 자리를 찔렀다. 칼에 맞았으면 상처가 난 만큼 장도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직 살거죽만이 무게를 지닌 채 아래로, 더 아래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더불어 실낱같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갔다.

3

뚜,뚜—— 이건 기계음이다. 가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헌수상태에 파진 게 얼마나 됐쨌?”

“한 이주 정도 됐을라나. 그건 그렇고 자네 치아는 어찌 되는 거래?”

“상처가 다 아물어야 하니까 임프란트는 아직 머뭇썩여.”

“그 몸으로 병문안을 오다니 기특하군. 자네가 왔다고 하면 대리가 기뻐할 걸세.”

이빨 사이로 바람 빠진 소리를 내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 여자는 뇌파 측정기를 옆에 두고 입에는 인공호흡기 튜브 노즐을 물었다. 바람은 옆구리도 아주 시리게 만들었다. 폐에 바람이 들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 창자에 바람이 들어도 마찬가지다. 미로처럼 꾸불대던 계단…… 창자에 칼을 맞고 쓰러졌었다. 구급침대에 온 몸이 묶여 전기충격을 당하기도 했었지. 제 369회 로또 발표를 하겠습니까…… 이걸 즐겨보던 TV 프로였다. 제길! 이번 걸 샀던가? 아니야. 못 샀잖아. 맞춰봐야지. 지갑을 뒤져보면 한 장쯤 나올지도 몰라. 경쾌하게 공 굴러가는 소리, 핀볼기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당첨번호야.

눈을 떠 보면 암흑이었다. 여자는 눈을 뜨고 있는 거라 확신했다. 그런데 어둡다. 공 모양의 형광물질만이 떠다녔다. 확 떠져랏! 눈아!

머리카락 보인다, 이얍!

냄새가 났다. 밀감 냄새, 누군가 밀감을 까먹고 있었다. 싱그럽고 달달한 냄새가 퍼지더니만 이내 땀 찬 발냄새가 났다. 누가 구두를 벗어놓았을까.

깔깔, 킁킁, 킁킁. 찹찹.

웃음소리, 한숨소리. 여자. 남자.

언제나 깨어날 수 있을까.

회사를 매각…… 중국으로 도망…… 군수업체 로비…… 무기 로비스트 조사……

이야기가 또 다시 떡엄떡엄 들렸다. 여자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튜브가 눌러 기도를 막았다. 객객거리며 줄을 잡아끌었다. 그러다 갑자기 팍, 눈이 떠졌다. 실낱같은 빛이 들어와 동공을 찢는 것 같은 통증을 가져왔다. 아직도 눈가가 찢득거렸다. 누군가 다시 폴로 붙여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일었다.

더 크게 눈을 떠보자.

작업반장이 침대 발치에 서서 여자에게 반쯤 등을 돌린 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턱에 붕대를 감고 있는 이주임도 있었다. 그 옆에 앉아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전과장도 보였다. 여자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발을 꿈쩍거리려 보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튜브 줄을 살짝 잡아당겼다. 아직 아무도 여자가 일어난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둔한 남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여자는 팔을 삼 센티미터 가량 들어올렸다.

“어!”

반장이 음료수 캔을 버리려고 등을 돌렸다가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세 명의 남자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과장이 의사를 부르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제 병실에는 이주임과 반장 그리고 여자만 남았다.

여자는 점점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살아나다니 기적이야. 고맙네.”

반장이 여자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겹쳐 잡으며 말했다. 여자는 쉽게 입을 뗄 수 없었다. 반장 등 뒤로 이주임이 비쳤다. 불이 홀쭉하게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유난히 슬퍼 보였다.

여자는 이주임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물었다.

“괜찮아요?”

이주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다. 이제 어떡해야 할지, 이들이 왜 병실에 다들 모여 있었는지 전부 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허기가 졌다.

여자는 손가락을 드는 시늉을 하며 물었다.

“밥은 언제 먹나요?”